

“당신의 마음에도 아리아가 흐르고 있었다”

백재은 · 장일범 ‘당신 곁의 아리아’ 출간

세상에 음악책은 많지만, 이 책처럼 조용히 마음의 가장 깊은 곁을 울리는 책은 드물다.

성악가 백재은 씨와 음악평론가 장일범 씨가 함께 쓴 『당신 곁의 아리아』(그레도 북 출판사)는 ‘오페라 입문서’라는 말로는 다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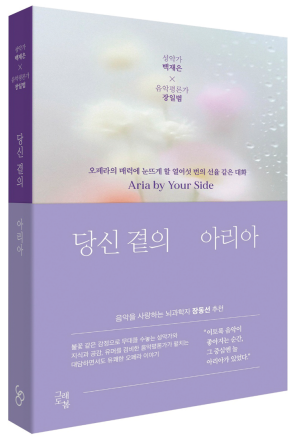
백재은 성악가



장일범 음악평론가

이였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두 사람의 ‘대화’에 있다. 수십 년간 무대에서 아리아를 불러온 백재은 성악가는 인물의 심리와 감정을 눈물 맺힌 목소리로 전하고, 클래식 해설의 대중화에



당신 곁의 아리아

앞장서 온 장일범 평론가는 음악의 배경과 작곡가의 숨은 의도를 친절하게 들려준다.

두 사람의 호흡은 라디오 방송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서 이미 많은 청취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여운이 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책은 ‘사랑’, ‘열망’, ‘운명’이라는 주제를 따라 16곡의 대표 아리아를 소개한다. 예컨대 『카르멘』의 ‘하바네라’는 자유롭고 당당한 여성의 목소리를 노래하고,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는 고통 속에서도 불굴의 희망을 품은 인간의 절박한 소망을 들려준다.

우리가 어떤 장면에서 울컥했던 기억,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이 빛나 보이던 순간, 혹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붙잡았던 그날

들이 이 아리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리아들이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까스탈명수 광고에 쓰인 밤의 여왕 아리아, 영화 <미션 임파서블> 속 ‘네순 도르마’, 다양한 드라마와 광고에서 울려 퍼졌던 푸치니의 선율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들이라 독자들은 “아, 이 노래 들어봤는데?” 하고 반가워한다. 그리고 그 친숙한 음악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와 인물의 감정을 알게 되는 순간, 음악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삶의 주인공이 된다.

『당신 곁의 아리아』는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감정과 서사의 입구를 열어주는 입문서이고, 오페라를 사랑해온 이들에게는 새로운 해석과 깊은 공감을 전해주는 동반자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아리아 한 곡쯤은 간직하고 산다. 사랑했던 순간, 이별했던 날, 무너졌던 기억, 다시 일어섰던 새벽. 그 모든 감정들이 책장을 넘기는 순간에 되살아난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울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당신이 품고 있는 가장 뜨거운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읽고 듣고 느끼는 아리아 속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당신 곁의 아리아』를 음악을 사랑하는 책이 아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책이다. 우리를 흔들고, 위로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노래를 곁에 두고 싶게 만드는 책이다. 그리고 그 제목처럼, 그 아리아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다.

이 책은 음악에 문외한인 비음악인에게도 술술 익히는 좋은 책으로 우리에게 음악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준다고 감히 단언한다. 강호제현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만호 기자

출판진흥원, 교보문고 · 알라딘과 전자책 접근성 향상 협약 체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재선, 이하 출판진흥원)은 (주)교보문고(대표 허정도),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대표 최우경)과 함께 최근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향상과 포용적인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과 손잡고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책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전자책 뷰어의 접근성 기능 개선을 위한 공동 협력, △접근성 전자책 유통과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다. 출판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정보 접근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업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독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협력으로 유통사가 주도적으로 전자책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품질 디지털 출판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용 환경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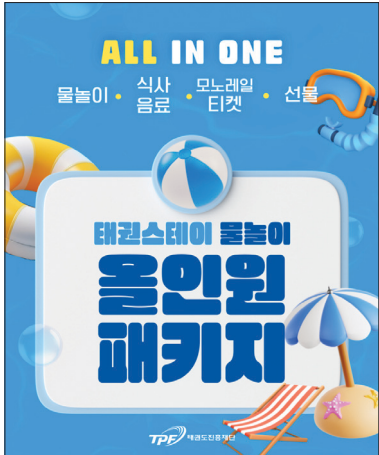
태권도진흥재단, ‘태권스테이 물놀이 상품’ 출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여름방학을 맞아 ‘태권스테이 물놀이 상품’을 출시한다.

태권스테이 물놀이 상품은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운영하며 사전 예약자에 한 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예약 창을 지난 27일 개설했다. 지역 여행 누리집인 ‘노는법’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가격은 1인 2만원이다. 특히, 사전 예매 시 50% 할인율을 적용해 ‘1만원’으로 물놀이 상품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태권도 관광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료인 1만원에는 물놀이와 함께 식사권, 모노레일 탑승권, 음료 이용권, 스포츠 수건 등 태권스테이 물놀이 상품을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선물 꾸러미를 마련했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번 여름 태권도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시원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자 태권스테이 물놀이 상품을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태권도원과 지역 여행 등 차별화된 스포츠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스테이 물놀이 상품 예약과 상세 정보 확인은 지역 여행 누리집인 ‘노는법’ 또는 ‘상담 전화’ (02-3661-0116)통화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소리프론티어’ 참가자 공개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 신진 국악 창작자 발굴 프로젝트... 7월 3일까지 접수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왕준)는 오는 7월 3일까지 ‘2025 소리프론티어’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리프론티어는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소리축제의 대표 신진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총 43개 팀을 선정해 해외 주요 무대에 소개하며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과 세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의 전통 장르 대표 축제로 선정돼 2025년부터 국내 유일의 전통음악 유통 플랫폼 <소리NEXT>를 시작한다. 이와 연계해 ‘소리프론티어’는 단순한 인재 발굴을 넘어 창작자와 음악 시장을 잇는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더불어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국내외 전통음악의 시장 진출 방법 도모 등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한국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음악 단체다. 고유의 레퍼토리로 60분 이상 무대 공연(아외)이 가능한 창작자, 국내외 음악시장 진출 의지가 뚜렷한 창작자, 국악(전통음악)과의 단순 합주 형태를 지양하는 창작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개인 또는 단체(총 연주 인원의 20% 이하 가능)나 학교, 종교기관 소속 단체, 초중고대학 재학생 중심의 동아리는 신청이 불가하며, 7월 19~21일까지 진행되는 합숙 워크숍과 8월 13~14일 사이에 진행되는 쇼케이스 및 관련 프로그램에 전원이 필수 참석해야 한다.

접수는 7월 3일 오후 3시까지 구글폼(<https://link24.kr/1xy0wL>)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서 작성과 함께 연주 영상 2개(링크 불가), 음원 파일 3개 이상, 개인정보 제공 및 활동 동의서를 하나로 압축해 zip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가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지난 27일 재단에 따르면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는 국가 공인 인증기관이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보장 기준을 충족했을 때 부여하는 인증으로, 이번 획득을 통해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사회적 책임 실천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양성평등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홈페이지 품질 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